

■ 펜티엄 엑스터

오디오 기능이 강화된 멀티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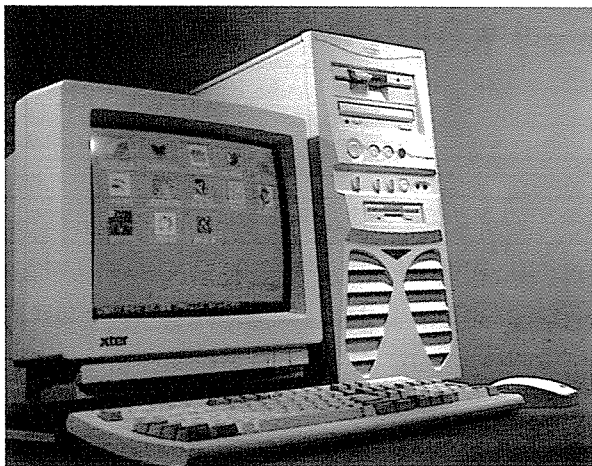
펜티엄 칩을 채용한 멀티미디어 PC 펜티엄 엑스터 발표.

하이파이 스테레오 앰프와 전격 출력 50W의 스피커를 본체에 내장하고 시스템 전면엔 볼륨과 베이스, 트레블 등의 이퀄라이저 조절 패널을 장착, 오디오부분이 강화되었다.

특히 음성인식 일정관리 프로그램인 보이스 스케줄을 비롯한 풍부한 번들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구입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번들 소프트웨어를 한 장의 CD 롬으로 만들어 프로그램 손상에 대비했다.

PCI 방식의 메인보드와 그래픽 카드에 560MB 하드 디스크, 8MB 메인 메모리, 목소리 3.8, 소니 2배속 CD롬 드라이브를 장착했다.

◆가격은 1백88만원(모니터, 부가세 별도)



◇오디오기능이 강화된 펜티엄 엑스터

■ 라인업 시스템

무전원 프린터공유기 오토링크

프린터 공유기 전문업체인 라인업시스템은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 프린터 공유기 오토링크 시리즈를 발표했다.

오토링크는 기존의 25핀 케이블 대신 4선 전화선을 이용해 설치와 배선이 간편하며, 원거리 전송이 가능해 PC와 프린터를 편리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한 대의 프린터에 50대의 PC를 연결할 수 있는 멀티플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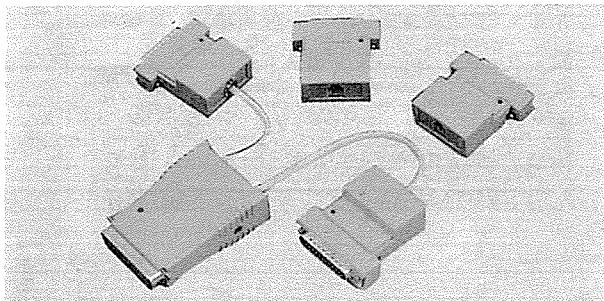


하드웨어

토링크 역시 무전원 4선 전화선 접속 방식으로 안전 전송거리가 최대 400m에 이르며, 버스, 비지 등 각종 구조를 지원한다. 전송속도는 각각 128KBPS, 150KBPS이며, 국내외 대부분의 프린터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가격은 오토링크 7만원, 멀티플 오토링크 9만원

◇별도의 전원없이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는 오토링크



■ PCMCIA 통합한 PC 카드 카메라

스코틀랜드의 VVL사는 통합 PCMCIA 비디오 카메라인 PC 카드 카메라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PCMCIA카드에 접속되어 있는 윈도우즈 프로그램 VVL 스냅을 통해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노트북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이때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는 최대 초당 5프레임으로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고 정지 화상도 TIFF파일로 캡처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어 PCMCIA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어떤 플랫폼이든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노트북에서 직접 전원을 끌어와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케이블이나 배터리가 없는 것도 특징.



◇PCMCIA 비디오카메라, PC 카드 카메라

■ 데이터 펜(Data Pen)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하다가도 기억하고픈 글귀를 발견하면 밑줄을 긋거나 오려낼 필요없이 디지털방식으로 간단히 저장할 수 있는 노트북이 나왔다.

Primax사에서 개발한 Data Pen은 다기능 스캐너와 문자인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Omnifont technology에 기반을 둔 폰트라면 모두 판독가능하다. 1초당 최대 4.1인치정도 스캐닝하며 그 정확도는 99.9%에 달한다고 한다.

Data Pen은 패러렐포트에 연결하여 사용되며 윈도우즈 3.1이상, 4MB 램, 5MB 하드디스크 스페이스의 환경에서 사용가능하다.

◆소비자가격 3백99달러



◇Primax사에서 개발한 데이터 펜

■ 펜 컴퓨팅 시스템 씹크패드 730T

IBM이 발표한 씹크패드(Think Pad) 730T는 휴대성과 절전 기능이 뛰어난 펜 컴퓨터.

인텔 절전형 486SS/33을 장착한 이 제품은 건전지 하나가 끼워져 있을 때의 무게가 3.5파운드로 가볍다. 또한 절전 기능도 뛰어나 니켈-카드뮴 충전지 두 개만으로도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640×480 해상도를 지원하는 9.5인치 흑백 LCD 모니터가 부착되어 있는 이 제품은 두개의 타입 III PCMCIA 슬롯을 제공하며, 펜 컴퓨팅용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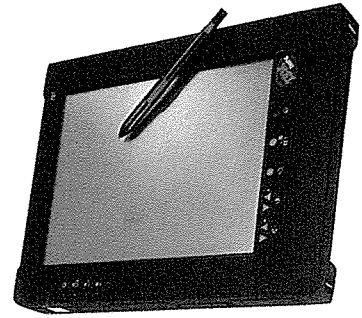
입력된 내용은 일렉트로닉 잉크(Electronic Ink) 기능을

통해 텍스트나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다.

◆2천5백79달러에 판매



소프트웨어



◇충전지 2개로 10시간 사용가능한 펜 컴퓨터, 씹크패드 730T

■ 하다찌 뉴미디어사의 CDR 6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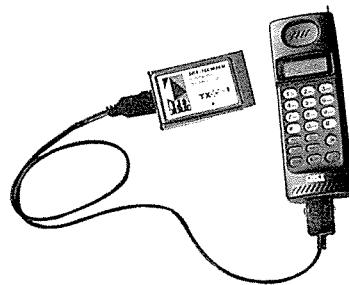
평균 액세스타임이 270 MS인 CDR 6550은 비즈니스나 홈 Application에 모두 적합하다. 342 KBPs의 전송속도를 유지해도 과열되지 않는 2배속 SCSI CD롬 드라이브.

128-Kb 룩어헤드 버퍼(Lookahead Buffer)를 가지고 있어 42mBPS의 데이터전송을 가능케한다.

CDR 6550드라이브는 SCSI-2라는 COMMAND SET을 지원하며, CD-ROM XA 그리고 Kodak Multisession photo CD를 지원한다. 이 제품은 ISA-bus와 Micro Channel Architect PCs를 위한 SCSI-2 adapter와 사용가능하고 포터블과 노트북 병렬포트와 연결해서 사용한다.

■ 셀룰라다이렉트 모뎀(Apex Cellular Direct)

Cellular Direct Type-II PC Card Modem을 셀룰러폰의 데이터 액세스 포트에 바로 연결해서 쓰는 셀룰러 다이렉트모뎀은 기존의 부피 큰 인터페이스박스가 필요없는 이동 데이터 전송장치로서



◇Apex사는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Apex사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시키고자 개발한 제품이다. 전화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롬을 갖고 있으며 전원을 켜면 사용하고 있는 전화의 타입을 즉시 알수 있다. Celeritax

Technologies와 제휴하여 throughput을 증가시키고 전송에러를 줄일 수 있는 TX-CEL(Throughput X-Cellerator)에 대한 특허를 따냈다.

◆가격 3백29달러.

■ 마우스 슬라이드 (Mouse Slide)

Creative Computer Accessories사가 개발한 Mouse Slide는 노트북 컴퓨터에 인스톨하여 사용하는 포인팅 디바이스.



6 5/8×10 1/2인치의 평평한 데스크탑 사이즈 마우스가 필요하다.

◆권장소비자가 24달러 95센트.

■ 컬러모니터 IP Lite

콘트론 일렉트로닉사에서 개발한 컬러 디스플레이 노트북 출시.

9.4인치 스크린은 VGA 256컬러를 지원하며 5개의 EISA 확장슬롯과 고성능 CPU보드가 장착되어 있어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윈도우 NT, UNIX, DOS, OS/2 환경하에서 빠른 데이터전송을 돕는 EISA 버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산업용으로 디자인된 IP Lite의 케이스는 주변의 온도나 진동에 구애받지 않도록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키보드는 분리 가능하다.



■ 국내 최초 RDBMS 시스템 CODA 개발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업체 최초로 다수 사용자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CODA를 개발했다.

CODA(Client/Server Open Database Architecture)는 RDBMS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3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개방형 DB틀이다. 이는 유닉스와 PC 윈도우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여러 유형의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타이컴, 삼성웍스테이션 등 유닉스 OS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과 윈도우즈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높은 이식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가지고 있어 CODA는 다운사



통신

이징 환경에 적합하고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회복기능을 통한 신뢰성, 데이터의 무결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CODA 서버는 관계형 DBMS 서버로서 동시성 제어 및 장애 회복 기능을 바탕으로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하며, 사용자 별도 케이블, 컬럼, 인덱스 단위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해 준다.

■ 초경량 셀룰러폰

모토로라사의 'Cellular Subscriber Group'에서 3.9온스 중량의 'Micro TAC Elite'와 무게 6.6온스의 디지털 셀룰러폰 'Micro Digital Elite'를 개발, 출시했다.

이런 엘리트 시리즈 휴대폰은 집적회로, 패키징, 디자인면에서 뛰어나며 특히 엘리트시리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10.7온스의 Micro Tac 무게를 무려 60%나 줄이는데 공헌했다.



■ MP100 Writing PAD

2파운드 미만의 작은 포터블 MP 100 Writing Pad는 손으로 쓴 문자를 기계가 척척 알아들을 수 있으며 RS-232 커넥터를 통해 다른 PC로의 전송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해상도 1024×1024 픽셀을 갖춘 이 제품은 종이와 볼펜, 비전자성 스타일러스를 이용하여 조작 가능하다. 10시간 지속되는 충전배터리를 사용하며, AC어댑터나 충전기를 사용하는 도중에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멀티미디어 노트북

키보드아래 더블스피드 CD-ROM 드라이브를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파나소닉 퍼스널컴퓨터사의 멀티미디어 노트북에는 16bit 스테레오 사운드, 540MB CD를 수용할

수 있다.

PCMCIA 슬롯에 TYPE II와 TYPE III 카드를 장착할 수 있으며 10.4인치 TFT 컬러스크린이 65536컬러와 해상도 640×480 픽셀을 지원한다.

50MHz 486 DX2 모델은 4MB RAM, 플로피드라이브, 260MB 하드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펜티엄 모델을 개발중에 있다.

◆가격 3천9백99달러, 무게 8.4파운드



FOCUS

매스 워크숍은 교육용 타이틀답게 화려한 색상과 귀여운 그림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다. 워크숍을 관리하는 폴리 곤자레스, 산수를 이는 거스와 앨지버드가 등장하며 로켓, 이젤, TV, 볼링장 등의 다양한 배경과 여러가지 도구, 사운드 효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른 타이틀과는 달리 6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이가 그 대상이며 게임을 통한 학습방법과 부모를 위한 보충자료는 우리나라 교육용 타이틀의 나아갈 바를 나타내 준다.

◆가격 5만5천원(부가세 별도)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C++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매킨토시용 비주얼C++ 교차 개발 툴을 개발하여 윈도우즈와 매킨토시 양쪽으로 프로그램 버전을 작성해야만 하는 개발자에게 희소식이 되었다.

이 패키지로써 개발자는 우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 후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거의 손보지 않고도 매킨토시용으로 재컴파일 할 수 있다.

비주얼 C++ 2.0은 통합환경을 향상시킨 강력한 컴파일러로, 확장된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해 주목받고 있다. 비주얼 C++ 2.0의 32비트 MFC 라이브러리는 인텔과 RISC 4000, 그리고 DEC 알파, 매킨토시 플랫폼간에 소스 코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포터블한 개발 도구이다.

이 새로운 32비트 MFC 라이브러리의 기능은 다양한 쓰레드로부터 호출될 수 있으며, 새로운 쓰레드를 만들 수 있는 CWIN Thread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비주얼 C++ 2.0의 가장 특징적인 기술은 OLE커스텀 컨트롤 이벨롭먼트 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키트는 비주얼 워크벤치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패키지의 가격은 경쟁품과 비교할 때 동일하거나 싸지만 더 큰 장점은 경쟁품이 제공하지 못하는 비주얼 C++과의 통합성이다.

반면 이 패키지는 윈도우즈 3.5에서 운용되는 3백99달러의 인텔 플랫폼용 비주얼 C++이 필요하다.

◆가격 1천9백99달러.



◇파나소닉 퍼스널컴퓨터사의 멀티미디어 노트북

■ 매스 워크숍

브로더번드사의 교육용 타이틀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CD롬 타이틀로서 재미있는 놀이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교육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타이틀은 어린이들을 위한 산수교육 프로그램인 '매스 워크숍'과 학부모를 위한 '페어런츠 비디오 가이드 (Parent's Video Guide)'의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어런츠 비디오 가이드는 매스 워크숍이 제공하는 교육 방법과 학습전략을 동화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실력 향상에 부모의 도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지시켜 준다.

가장 좋은 학습방법은 늘면서 학습효과를 얻는 것이라는 말처럼 매스 워크숍은 7가지 게임을 통해 기본 계산방법, 문제해결법, 계산법, 분수, 패턴인식, 추산, 논리적 추론법 등을 가르친다.

93년 초만 해도 국산 CD롬 타이틀은 손에 꼽힐 정도였으나 93년말 이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 CD롬 타이틀은 지난 94년에는 국내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시켰다.

국내 학습용 소프트웨어는 올해를 고비로 CD롬 타이틀 환경으로 본격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94년까지 2백80여종이 국내시장에 유포되었으며 현재 매달 2~3개씩의 제품이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신규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CD롬 타이틀 가운데 90% 정도는 교육용이다. 교육용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CD롬 타이틀이 학습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급속하게 장악하는 이유는 첫째, CD롬이라는 미디어가 갖는 독특한 장점을 들 수 있다. 플로피디스크 10장을 모아도 12MB에 불과하지만 한장의 CD롬의 기억용량은 630MB로 음성정보와 동화상 등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 가격면에서는 단순 제작비가 플로피의 1/3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복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486 PC의 등장도 CD롬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과거 286PC 시절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동화상 애니메이션 등 대용량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컬러모니터, 사운드카드 등도 PC의 일반 사양으로 굳어지는 추세이다. 셋째, CD롬 드라이브 보급 확대 추세도 두드러진다. 95년 누적 보급대수 1백만대를 돌파하리라는 전망속에 고가의 CD롬 드라이브를 활용하기 위해선 결국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도 이 시장의 매력이다. CD롬 타이틀은 개발 초기에 투입되는 원판제작비 외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향후 이런 원판을 1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복제 생산함으로써 몇십배 장사를 할 수 있다는데 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CD롬 타이틀 시장이 성장의 조류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교육용 CD롬 타이틀 시장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용 CD롬 타이틀은 거의 교육과 오락기

능을 결합한 소위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국내 CD롬 타이틀 제품은 대개 유아 교육용이며 성인용은 영어회화 타이틀 정도이다. 그나마 동화상이 약하고 녹음수준이나 그래픽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가 일반적이다.

화상이나 음향처리 등 기술적인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아이디어와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획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교안 작성

전문가가 없이 대개 프로그래머들이 타이틀 구성을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서 현재 국내 CD롬 타이틀 개발 수준을 읽을 수 있다. 국산교육용 CD롬 타이틀은 순수한 교육용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즉 실용적인 기능취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CD롬 타이틀은 아직 사용자층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어학교육용 게임, 유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아교육용이 식상한 지경에 이르면서 교육용 CD롬 타이틀 제작에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CD롬 타이틀이 명백한 교육적 목표를 갖고 제작되는 한편 그 효과를 정확한 기준에 근거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전문기관이 참여할 필요가 제기된다. 저작도구 개발업체, 타이틀 제작업체, 교육전문가간의 협조도 필요하며 이밖에 다양한 영상자료와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언론사 등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대형 출판사의 시장참여는 이렇게 국내 CD롬 타이틀 제작이 '종합 작업'으로 가는 한 전조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은 대개 합작 또는 영업협력의 형태로 중소 전문업체와 제휴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동화상,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종합예술 차원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개발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교육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경우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 교육시장 규모가 93년에 1조원에 이르면서 컴퓨터 이용학습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머지않아 CD롬 타이틀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S)



TREND